

2026
05

병리협보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www.kamt.or.kr

CONTENTS

01 COVER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거부, 국민 건강권 외면한 결정

02 FOCUS

-현장검사의 시대 임상병리사의 역할 분명해야 한다

03 KAMT NEWS

-2026년 새내기 임상병리사 교육 진행
-제517차 상임이사회
-제189차 정기이사회

04 KAMT NEWS

-장종태 의원&보건복지부 건강검진과 간담회
-간호법 시행 이후 체혈 업무 임상병리사 전담 체계 구축 1차 회의 개최

제520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Leading a Peaceful Life with Technology
주식회사 티알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거부, 국민 건강권 외면한 결정"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거부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권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의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상정을 거부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이 보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지도’ 중심에서 ‘처방’ 중심으로 전환해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정이 무산되었다.

협회는 현행 제도가 재택의료에서의 방문검사 등 지역사회 기반 의료서비스 확대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환자들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입법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편익과 보건 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이번 결정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선 흐름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제기하는 의료체계 붕괴나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에 불과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근거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6년간 시행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제시하며 “방문 기반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됐고, 중대한 사고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도 개선이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정교한 제도 설계’를 이유로 법안 상정을 보류한 데 대해 협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오히려 ‘처방-기록-수행’ 구조를 통해 책임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으며, 정부 역시 하위법령 정비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상정 자체를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 기반 의료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의료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중심 의료 전달체계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며, 의료인이 환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왜곡된 주장과 선동 중단,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재논의, 김미애 의원의 책임 있는 대응 등을 촉구하며,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검사의 시대 임상병리사의 역할 분명해야 한다

POCT 확산과 공공보건 현장에서의 검사 책임,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실장 김 기 유

의료현장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 과거 검사는 의료기관 안에서 이루어지고, 결과는 일정한 절차와 검증 과정 속에서 해석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장비는 더 작아졌고, 검사 시간은 더 짧아졌으며, 데이터는 검사실 밖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된 후 의료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던 의료서비스가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방문건강관리, 통합돌봄 현장에서는 혈압·혈당·활동량 등 각종 건강지표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활용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역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 안에서 건강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점에서 POCT(Point of Care Testing)의 확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보건 의료서비스의 흐름이다. 문제는 POCT의 확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장비와 결과가 어떤 목적 아래 누구의 책임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있다.

■ ‘측정’과 ‘검사’는 같지 않다.

이 문제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측정’과 ‘검사’는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반영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자격의 보건관리자는 1등급 기기를 사용해 혈압·혈당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정상·주의·위험 범위에 속하는지 안내하며, 필요하면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질병 유무를 진단하거나 특정 질병의 발생 위험을 예측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손끝 채혈로 수치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임상진단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임상진단을 수행할 권한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보건소 건강관리사업에서 간호사가 제한된 범위에서 건강관리용 참고 수치를 제공하는 것과 POCT 장비 결과를 사실상 진단 자료처럼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일반 보건소 직원에게까지 이러한 임상적 판단의 영역을 넓혀 해석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 검사의 전문가는 임상병리사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임상병리사를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를 수행하는 전문 직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임상검사실 인증 체계 역시 품질관리체계와 전문인력의 숙련도를 핵심 요건으로 삼고 있다. 결국 검사가 카트리지화되고 기기가 소형화되었다고 해서 검사의 법적 성격이나 전문적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장검사일수록 검체 취급, 장비 상태, 시약 보관, 내부정도 관리, 외부 숙련도, 결과 검증이라는 과정이 더 촘촘히 관리되어야 한다.

임상병리사의 역할은 단지 장비를 “작동”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과가 임상 진단 데이터로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책임지는 데 있다. POCT 시대일수록 임상병리사의 자리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져야 한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면 비검사실 인력이 POCT를 수행할 경우 환자식별 오류, 검체 취급 오류, 시약 보관 및 만료 관리 실패, 결과 해석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교육과 품질관리는 검사실 책임자, 즉 임상병리사 등 검사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ISO 22870 또한 POCT를 단순한 편의성 중심의 기기가 아니라 표준화된 품질관리 체계 안에서 운영해야 할 검사 영역으로 본다.

쉽게 말해, POCT는 “누구나 쉽게 하는 검사”가 아니라 “쉽게 보일수록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검사”다. 우리가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편견이나

선입견은 장비가 간편해졌으니 검사도 간단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검사가 환자 가까이 갈수록 검사의 품질을 보이지 않게 떠받치는 임상병리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 현장검사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의 현실은 심각하다.

하지만 현실의 현장검사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은 이 경계를 정반대로 홍보하고 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업체 광고물에는 “임상병리사 없어도”, “별도의 임상병리사 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같은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특정 홍보물은 “13분 동시 4항목 모세혈검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임상병리사 없어도”라고 적고 있고, 또 다른 광고 이미지는 “10분내 최대 9개 항목의 검사가 가능하며 별도의 임상병리사 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라고 직접 표현하고 있다. 제품 특징 소개 자료에서는 손끝 모세혈, 자동원심분리, 다항목 측정, 원내 검사 수익 구조까지 연결해 설명하고 있다.

이런 문구는 단순한 편의성 홍보가 아니다. 이는 전문인력 없이도 임상검사 수준의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생산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검진이나 수가와도 연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표현이다. 결국 잘못된 광고의 표현이 제도의 경계를 흐리고 편의성의 논리가 전문성의 원칙을 밀어내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보건소 건강관리사업에서 혈압이나 공복혈당을 선별적으로 확인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안내하는 것은 건강증진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현장에서 카트리지 기반 POCT 장비를 사용해 여러 생화학 항목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사실상 질환 여부 판단이나 검진 결과처럼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또 장비 광고에서 “원내수가 청구”를 강조하며 병원 수익표까지 제시하는 방식은 검사 행위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보다 시장성과 효율성을 앞세워 누구나 장비를 다룰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 POCT 시대일수록 임상병리사의 법적 역할은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보다 명확해야 한다.

첫째, 보건소 건강관리사업에서 얻는 생활습관 관리용 참고수치와 임상진단에 직접 연결되는 POCT 결과를 법령과 지침에서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둘째, 보건소·검역소·통합돌봄기관·방문보건 현장 등에서 카트리지·칩 기반 진단장비를 운용할 경우에는 임상병리사를 품질책임자 또는 검사책임자로 두는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간호직역의 역할은 건강관리 상담, 선별 측정, 진료 연계의 범위에서 존중하되 임상진단 자료의 생성·검증·정도관리·결과 신뢰성 책임은 검사전문가인 임상병리사 체계 안에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진단이 현장으로 가는 시대일수록 검사의 정확도와 책임은 더 선명해야 한다. 임상병리사는 더 이상 검사실 안에만 머무는 직군이 아니라 통합돌봄 현장검사의 신뢰를 지탱하는 중심축이다.





2026년 새내기 임상병리사 교육 진행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4월 11일(토) 협회관에서 2026년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새내기 임상병리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송기선 학술부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우현 총무이사가 협회 소개 및 정회원 혜택을 안내하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채혈 교육(이론·실기), 폐기능 검사 교육(이론·실기), 검사실 감염 안전관리 교육, 취업 특강 및 모의면접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의 실무 적응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됐다. 또한 3개 조로 나누어 진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도 높은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에는 총 49명의 새내기 임상병리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특히 모의면접에서는 실제 채용 현장을 반영한 심층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는 시도회에서 참관해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지역 특화된 교육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새내기 임상병리사들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인 면허 관리를 통해 임상병리사의 국민적 신뢰도 제고와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제517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4월 9일(금) 오후 6시 30분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51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9명 중 15명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고 부장 26명 중 15명, 총원 45명 중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2026년 행정실무자워크숍 개최 보고 외 3건 ▲재무부 교부금 지급 외 4건 ▲학술부 2026년 학술분과 회의 외 3건 ▲교육부 교육센터 고도화 관련 교육부·다루소프트 회의 외 6건 ▲국제부 중소병의원 소속 회원을 위한 해외학회 참가 지원사업 관련 보고의 건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발행의 건 외 5건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건 외 2건 ▲대외협력부 2026년 제64차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광고

현황 ▲중소병의원부 중소병의원발전소위원회 실무자료개발팀 제1차 회의 외 1건 ▲보험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 외 1건을 보고했다.

안건 심의 및 의결에서는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회칙 개정의 건, 정관 및 제규정 일괄 개정의 건, '여비규정' 개정의 건, '사무국운영 제 규정' 개정의 건, 교부금 지급 시행세칙 개정의 건, 사무국 조직 개편에 따른 규정 및 세칙 일괄 수정의 건, '분과학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대면보수교육시 화상교육시스템(Zoom회의시스템) 병행 관련 정기이사회 투표 진행의 건이 진행됐다. 안건은 모두 통과됐고 기타토의 후 제517차 상임이사회는 폐회했다.

제189차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4월 25일(토) 오후 2시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89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이사회는 총원 53명 중 37명(성원), 감사 2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2026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보고 외 4건 ▲재무부 교부금 지급 외 8건 ▲학술부 제주 종합학술대회 진행사항 외 3건 ▲교육부 임상병리사 현장실습 수도권 실장 회의 외 12건 ▲국제부 2026년 제17회 대만학회(APFMLS) 참가 완료 및 초청연자 및 국제학생포럼 안내의 건 외 3건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발행의 건 외 4건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건 외 2건 ▲정무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최 국회토론회 참석 보고의 건 ▲대외협력부 2026년 제64차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광고 현황 ▲중소병의원부 중소병의원발전위원회 회의 외 2건 ▲보험부 제2차 보험부 회의 개최 외 2건 ▲대한감염안전관리임상병리사회 국내외 감염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2026.04.29.) 외 1건을 진행했다.

안건 심의 및 의결에서는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회칙 개정의 건, 정관 및 제규정 일괄 개정의 건, '여비규정' 개정의 건, '사무국운영 제규정' 개정의 건, 사무국 조직 개편에 따른 규정 일괄 수정의 건, '분과학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대면 보수교육 시 화상교육 시스템(가칭:Zoom회의시스템) 병행 논의의 건이 진행됐다. 안건은 제7호 '대면 보수교육 시 화상교육시스템(가칭:Zoom회의시스템) 병행 논의의 건'이 유보되었고 그 외 안건은 모두 통과됐으며 기타토의 후 제189차 정기이사회는 폐회했다.

장종태 의원 및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국회 간담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과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임상병리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적기 치료를 위한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규모 건강검진기관 내 전문성을 갖춘 임상병리 인력 배치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과 함께, 지난 2025년 4월 30일 간담회 때 논의된 사항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관련 '15인 미만 국가건강검진기관 내 임상병리사 부재 시 무면허 행위 근절에 관한 기준'의 후속 조치 및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종태 의원을 비롯해 협회 측 최병호·김한규 부회장, 김기유 정책실장 등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전하윤 사무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김지혜 부장, 김선정 팀장이 함께했다.

최병호 부회장은 현안 보고를 통해 초기 수검률 저하로 인해 완화된 일반검진기관 지정 기준이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검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면허를 보유한 전문 의료기사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현행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통해 일정 부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직역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임상병리사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기준을 명확히 고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시행 이후 채혈 업무 임상병리사 전담 체계 구축 1차 회의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30일(목)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중앙회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시행 이후 채혈 업무의 임상병리사 전담 체계 구축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병호 사업부회장이 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협회는 간호법 내 '의료기사 업무 제외' 규정을 근거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간호사의 채혈·심전도 등 진료 보조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확립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3년의 법적 유예 기간 동안 의료현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법령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채혈 전담 체계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도입과 수가 개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것이 집행부의 핵심 과제를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 추진 과제도 구체화됐다. 공보부는 불법 업무 리스트를 시각화한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등 주요 KTX 역사 광고를 통해 '채혈은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라는 메시지를 대국민에 확산하기로 했다. 또한 '채혈 및 검체 관리 전문가 = 임상병리사'라는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 영상 제작과 SNS 채널 운영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협회 홈페이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공익신고'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현장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기관별 불법 행위 통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 대응 시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학술부는 신생아 및 동맥혈 채혈 등 고난도 영역을 포함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내용을 온라인 보수교육 필수 과목으로 편성해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기획정책부는 국가행정기관 및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보건의료노조와의 임단협 연계, 국립대 및 'Big 5' 병원 실장단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분기별 신고 통계 바탕으로 지자체, 시군구, 복지부대통령실 대상 강력한 정책 건의 및 행정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차기 집행부 연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TF를 상설 운영하여 3년 내 전담 체계 정착을 완료하기로 했다.

중앙회 동정

- 04월 0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방문검사(POCT) 실무 협의
- 04월 04일 행정실무자워크숍
- 04월 07일 보건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 참석
- 04월 07일 제2차 중소병원원 발전위원회 회의
- 04월 08일 중앙회-서울시회 정책 현안 실무협의
- 04월 09일 제517차 상임이사회
- 04월 11일 2026년 새내기 임상병리사 교육
- 04월 13일 홈페이지 교육센터 구성 회의
- 04월 18일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자체평가보고 설명회

- 04월 20일 제4차 임상병리사 업무범위 리스트 준비 회의
- 04월 21일 의료기사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 04월 25일 제189차 정기이사회
- 04월 27일 정책토론회(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출범식 및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보)
- 04월 28일 제3차 학술부 회의
- 04월 29일 장종태 의원&보건복지부 건강검진과 간담회
- 04월 30일 간호법 제정에 따른 업무범위 긴급 회의

제64회 제주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Beyond Diagnostics, Toward Global Standards



진단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표준으로

진단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표준을 향한 창의적 진화

오는 2026년 9월 18일(금)부터 19일(토)까지, 제64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임상병리 분야의 최신 학술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국제적 협력과 미래 의문기술의 표준화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국제학술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학술대회 주제는 "Creative Evolution in Medical Technology: Shaping Global Standards" (임상병리학의 창의적 진화를 통한 글로벌 표준 정립)으로 정해졌다.

슬로건은 "Beyond Diagnostics, Toward Global Standards" (진단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표준으로)이다.

이는 단순한 검사 수행의 영역을 넘어, 임상병리사가 의료 현장에서 진단 정확도 향상, 환자 안전, 의료 품질 관리, 미래 융합의료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26년 9월 18일(금)

TIME	전시장		3층(301호)	(302호)	(303호)
	부스	포스터행사	글로벌 표준 임상융합 트랙		
09:00-10:00		포스터전시	국제심포지엄	대한임상검사 과학회 심포지엄	분과통합세션 I (조직세포, 면역, 화학, 핵의학)
10:00-11:00	부스전시				
11:00-12:00		국제 포스터 발표	연구정책과제		
12:00-13:00	점심시간				
13:00-14:00	부스전시	포스터전시	국제학생포럼	임상검사정보학회 세션	분과통합세션 II (임상생리, 유전, 혈액)
14:00-15:00				임상생리검사학회 세션	
15:00-16:00	산학융합 심포지엄	국제학생 포스터 발표	대한진단검사 정도관리협회 세션		
16:00-17:00		포스터전시		개회식 (한라홀)	
17:00-18:00	기초 및 전체 강의(Keynote Lecture & Plenary Session) (한라홀)				
18:00-19:00	환영만찬				

2026년 9월 19일(토)

TIME	전시장		3층(301호)	(302호)	(303호)
	부스	포스터행사	글로벌 표준 임상융합 트랙		
09:00-10:00		포스터전시		대한진단검사 정도관리협회 세션	분과통합세션 III (수혈, 미생물)
10:00-11:00	부스전시		국내포스터 발표	대한진단검사 정도관리협회 심포지엄	
11:00-12:00			감염안전관리 임상병리학회 심포지엄	공중보건검사학회 세션	
12:00-13:00	점심시간				
13:00-14:00				미래융합 심포지엄	
14:00-15:00			주제심포지엄 I		중소병의원 심포지엄
15:00-16:00	부스전시	포스터전시		지역사회 진단검사 실무 워크숍	정목포럼 (삼다홀)
16:00-17:00			임상병리퀴즈쇼		
17:00-18:00	폐회식 & 기초강연 "임상병리사의 미래를 위한 비전" (삼다홀)				

본 프로그램은 학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한진단검사 정도관리협회 세션을 수강하면, 품질관리 및 수탁기관인증을 위한 외부교육 실적 1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 의료를 이끄는 임상병리학의 확장

이번 학술대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표준화를 위한 역할 확장을 조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기반 진단기술, 분자유전 검사, 감염병 대응, 공중보건 분야 등 임상병리학의 영역은 과거의 전통적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의료 환경에서는 진단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 국제적 검사 기준 정립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번 제주 국제컨퍼런스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임상병리학의 위상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회원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 및 학생들과의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표준 구축에 기여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초 강의 (Keynote Lecture), 한라홀



창의적 진화와 글로벌 신뢰: 임상병리사의 전문성 브랜딩 전략

장기적 변화와 융합의 시대, 임상병리사는 의료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전문가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강연은 전문성의 가치를 브랜드 인적으로 확립하여 글로벌 표준 시대에 걸맞은 임상병리사의 미래 경쟁력을 조명합니다.

이름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전문직으로서의 위상과 비전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국 박사 1호
송상대 경영대학원
이미지경영학과 교수
한국프레스비즈니스협회 부회장

전체 강의 (Plenary Lecture), 한라홀



"검사의 신뢰를 지켜온 길-임상병리사의 경험과 사명"

본 강연을 통해 신뢰의 정당한 헌신은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의 가치와 자부심을 보여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번 강연은 직종전문성에서 차이를 신뢰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신뢰의 확립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세대를 이끌 후배들에게 바람직한 직업에 대한 감명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김현준
전북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회장



국제성과 융합을 강화한 프로그램 구성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성과 융합성을 강화한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첫째 날에는 국제 심포지엄과 국제 학생 포럼 등 국제행사와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세션, 대한임상검사과학회 심포지엄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노년의학, 현장검사(POCT), 다발성 골수종을 주제로 조직세포, 면역, 핵의학, 화학 분야를 아우르는 분과통합 세션 I, 임상생리, 유전, 혈액 분야의 분과통합 세션 II, 이 편성되어 핵심 분야 간 융합적 학술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Global Standards & Clinical Convergence Track(글로벌 표준·임상융합 트랙)을 별도로 운영하여, 국제 표준과 임상 실무의 접점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2026. 9.18(금)~19(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Beyond Diagnostics, Toward Global Standards

실무 중심 세션과 미래 비전 제시

둘째 날에는 현장 실무와 미래 정책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이번 학회의 주제 심포지엄인 「정확한 검사의 시작: 채혈 기술의 발전과 환자 안전」은 채혈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심도 있게 다루는 핵심 세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채혈의 이론적 개념부터 소아 채혈의 실제, 검사실 내 채혈실 운영과 전반적인 프로세스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오랜 기간 채혈실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실무자들이 직접 연자로 참여해 실제 현장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운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첫날에 이어 분과통합 세션과 감염안전관리 임상병리사회 심포지엄, 지역사회 진단검사 실무 워크숍, 중소병의원 심포지엄, 미래융합 심포지엄, 정책포럼 등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정책포럼에서는 “통합돌봄 시대, 임상병리사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의료전달체계 변화 속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회식에서는 “임상병리사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주제로 기조강연이 마련되어, 이번 포럼은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니라, 임상병리사의 미래 역할을 조망하고 현재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돌아보며 다음 비전을 제시하는 상징적 시간이 될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부 프로그램도 기대감 높여

현재 일부 국내외 연자 섭외 및 세부 프로그램 조정은 진행 중에 있으나, 오히려 그만큼 보다 수준 높은 국제학술 프로그램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활용성을 동시에 갖춘 국제컨퍼런스로 준비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학술행사를 넘어, 대한민국 임상병리학의 미래 방향성과 글로벌 표준 정립을 논의하는 상징적 무대가 될 전망이다.

다양한 시도로 국제학회 도약 준비...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기대감 고조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가 국제학회 수준의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준비하며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분과학회의 수준 높은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분과 간 학술적 공통점과 임상병리학적 접근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각 분과의 전문성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 융합과 연결을 통해 회원들의 학술적 만족도와 실질적인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미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현재 포스터 발표 활성화를 위해 포스터 초록 사전접수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사전등록 이전 포스터 초록을 접수한 회원들에게는 상품권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회원들의 연구 참여와 발표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부스 참여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진단기술과 장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산학융합 심포지엄도 준비 중이다.

회원들이 산업 현장의 신기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학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조율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월 제주, 학술과 힐링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오는 9월, 가을의 제주는 그 이름만으로도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잊게 하고 여행의 설렘을 떠올리게 한다. 파란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어우러진 제주의 풍경은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또 다른 치유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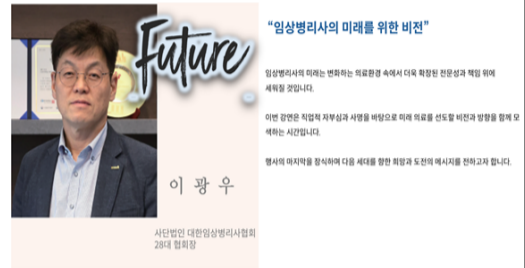
가을의 올레길을 걸으며 자연 속 여유를 느끼고, 제주의 맛있는 음식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번 종합학술대회의 또 다른 매력이다. 바쁜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회원들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학문적 성장뿐 아니라 일상의 피로를 덜어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 9.18(금)~19(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JEJU



폐회 기조강연 (Closing Keynote Lecture, 삼다홀)



제64회 제주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포스터 초록 사전접수 OPEN EVENT

사건접수하고 혜택 받아!

- 이벤트 대상:** 포스터 초록 사전접수 회원 (발표 파일은 사전등록 이후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7일(월) ~ 사전등록 시작 전(7월 예정)
- 혜택:** 스타벅스 2만원 모바일 쿠폰 증정

접수 방법: 협회 이메일 접수

※ 포스터 초록 접수는 사전등록 이후에도 계속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는 우수 포스터상 시상 확대하여 더 많은 회원분들께 수상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접수: kamt@daum.net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귀 병원의 진료가 카자흐스탄(중앙아시아)으로 진출합니다!”

해외의료 국제협진과 PPCC (Pre Post Care Center)

(재)씨젠의료재단과 오픈헬스케어(주)가 운영하는 해외 메디컬 센터를 기반으로, 한국 의료기관과 현지 의료진이 협력하여 해외 환자들에게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자흐스탄 의료 국제협진 특징점

- 01 코리안 메디칼 센터 알마티 운영
- 02 최첨단 의료장비 완비 (MRI, CT, 내시경, 진단검사의학 · 분자진단 · 병리 검사 등)
 -  MRI 3.0T (중앙아시아 최초 도입)
 -  CT 256 슬라이스 (카자흐스탄 최초 도입)
 -  내시경 검사
- 03 안정적인 해외 환자의 진료와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

PPCC (Pre Post Care Center, 사전 · 사후관리센터)


- 해외 환자 진료 및 관리 프로그램 -

사전 관리 Pre Care

 **진료 장소**
 <카자흐스탄>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 기초 검사 및 진단 실시
- 통역 및 행정 서비스 지원
- 한국 진료 및 치료 위한 준비 지원

국제협진

 **진료 장소**
 <한국> 협력 의료기관

- 공동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 시설 및 인력 · 장비 공유

사후 관리 Post Care

 **진료 장소**
 <카자흐스탄>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 치료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원격 진료를 통한 환자 상태 공유
- 필요 약물 및 재활 치료 현지 제공

• 해외의료 국제협진 협력 : 오픈헬스케어(주) ☎ 02-2114-8011 🌐 www.ohc.global ✉ ohc@ohc.global

(재)씨젠의료재단은 지난 2023년 7월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한 오픈헬스케어(주)(Open Healthcare, Inc)를 설립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오픈헬스케어(주)와 함께 카자흐스탄 · 미국 · 베트남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의료 해외진출 · 해외환자의 국내유치에 힘쓰고 있고, 한국의료기관과 해외환자의 진료를 위해 오픈헬스케어와 협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SMF Central Laboratory
(Korea, Seoul)



부산경남검사센터
Busan Laboratory Center



대구경북검사센터
Daegu Laboratory Center



광주호남검사센터
Gwangju Laboratory Center



대전충청검사센터
Daejeon Laboratory Center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Almaty
(Kazakhstan, Almaty)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LA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LA
(USA, Los Angeles)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하노이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Hanoi
(Vietnam, Hanoi)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genemedical.com



 OPEN
Healthcare

 02-2114-8000
 www.ohc.global
 ohc@ohc.global



경기도임상병리사회

경기도임상병리사회-일본 후쿠오카현, 업무협약(MOU) 체결 및 학술 교류 성료



경기도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는 지난 4월 11일(토) 정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일본 후쿠오카현 임상위생검사기사협회와 상호 발전과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광철 경기도회장과 오쿠보 후미히코(大久保文彦) 후쿠오카현 회장을 비롯한 양측 각 6명이 참석하였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임상병리사의 전문성 강화와 기술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양측은 뜻을 모았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경기도회 보수교육에서는 학술적 깊이를 더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후쿠오카현 방문단 중 구루메 대학교 의료센터(Kurume University Medical Center) 소속의 Yuko Morikami 연자와 구루메 대학병원 소속인 Yuka Furue 연자가 강단에 올라 최신 임상 검사 지견을 공유했다. 일본 대학병원의 실무 경험이 담긴 이번 강연은 보수교육에 참여한 경기도회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양국의 학술적 유대를 공고히 했다.

업무협약 하루 전 입국한 협상단을 위해 경기도회 의전팀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서울의 중심부인 명동과 광화문으로 이동하는 특별한 일정을 진행했다. 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한국의 일상적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상단은 명동의 활기찬 분위기와 광화문의 역사적 가치 등 K-Culture, K-Food 정수를 만끽했다.

또한 경기도회는 일본 협상단 2박 3일간의 한국 체류 일정을 담은 기념 동영상 직접 제작하여 깜짝 선물로 전달했다. 방문 기간 내내 기록된 소중한 순간들이 담긴 영상 선물에 후쿠오카현 대표단은 깊은 감동과 함께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유광철 경기도임상병리사회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양 단체의 유대가 한층 더 깊어졌으며, 실무적인 협력과 학술적 교류 모두에서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후쿠오카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양국의 임상병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쿠보 회장 역시 답사를 통해, 이번 방한 기간 동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및 특수검사부 투어 중 최신 의료장비와 다양한 검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한-일 간 의료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식 참석 및 도지사 표창 수상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는 4월 7일(화) 오후 2시, 경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국민 건강 증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김민주 행정부회장이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민주 행정부회장은 평소 지역 보건의료 향상과 임상병리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제1차 정기이사회 및 분회장 연석회의 개최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는 2026년 4월 12일(일) 오후 12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산업안전체험장에서 제1차 정기이사회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28대 집행부 및 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권홍보 ▲보수교육 시행 ▲학술대회 지원 ▲도회 단합대회 진행 ▲기타 안건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도회의 원활한 운영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 분회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도회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주요 회의 및 활동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는 3월 13일(금) 회의실에서 학술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학술부사업 계획과 예산보고, 제1차 보수교육 시행 계획과 세부 운영 방안, 건강검진사업 실무자 교육(폐기능 검사) 추진 계획, 중소병의원 검사실 지원사업(정도관리 및 기술지원)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어 3월 24일(화) 19시에는 제47차 부산광역시의료기사연합회 정기총회가 롯데갤러리움 1층 웨딩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선애 섭외이사가 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으며, 황원주 회장은 부산광역시 의료기사연합회장으로 선출됐다. 3월 26일(목)에는 중소발전위원회가 부산시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중소병의원 지원 강화를 위한 워크숍 준비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현장 중심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실무 중심 논의를 이어갔다.

회원 간담회 및 제54회 보건의 날 시장상 수상



회원 소통을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부산시회는 3월 31일(화) '제4차 해피투게더'를 개최하고 신세계병원, 좋은삼선병원, 좋은광안병원, 부산대병원 병리와 임상병리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업무경험과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중앙회 및 시회에 대한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을 전달하며 회원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4월 7일(화)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4회 보건의 날 행사에서는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이태영 총무이사가 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하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6년 제1차 보수교육 실시

4월 18일(토)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2026년 제1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연제로는 건강검진기관 임상병리 분야 법적 요구사항과 준수 지침(장유진), 중소병원 근무자를 위한 수혈 전 검사 및 혈액관리 업무(황원주), 심장초음파 분야 임상병리사 진출 사례와 경력 개발 전략(임영희), AI 기반 검사 결과 질 관리 시스템의 이해와 활용(안광섭) 등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는 이번 일련의 활동을 통해 학술 역량 강화와 현장 지원, 회원 간 소통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제54회 보건의 날 행사



대구광역시가 주최한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4월 7일 화요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 내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구시회 재무이사로 활동 중인 이호범 회원이 지역 보건 향상과 임상병리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호범 회원은 재무이사로서 협회의 재정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 관리로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평소 성실한 직무 수행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협회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도 꾸준히 기여해 왔으며, 이러한 공로가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대구시 임상병리사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협회 회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민 건강을 지키고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

2026년 집행부 행정실무워크숍 개최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김창수)는 2026년 4월 10일(금)~11일(토) '2026년 충청북도회 임원연수회'를 개최하고, 조직 운영의 내실화와 향후 학술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수회는 중앙회 정책 공유와 함께 조직의 실무 역량을 점검하고, 2027년 오송에서 개최 예정인 종합학술대회의 준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중앙회에서 전달된 주요 행정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전자결재 시스템 활용과 회계 처리 기준 등 실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2027년 종합학술대회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학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회원 참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술 콘텐츠 구성과 운영 체계 정비, 효율적인 준비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또한, 종합학술대회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전략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연수회에서는 임원 간 유대 강화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활동도 병행했다. 플로깅(plogging) 활동을 통해 주변 환경 정화에 참여하며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김창수 회장은 “이번 임원연수회는 향후 종합학술대회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학술 및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는 이번 연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7년 종합학술대회의 체계적인 준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6년도 제1차 보수교육 및 인천의료기사연합회 행사 성료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채희영)는 지난 3월 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인천 지역 임상병리사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제1차 보수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4시간에 걸쳐 현장 중심의 심도 있는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강의로는 ▲청력장애 검사에 대한 이해(김자원·상계백병원) ▲채혈실 업무 개선을 통한 민원감소 활동(손정오·인천성모병원) ▲나는 왜 폐기능 검사가 어려울까? (김혜지·세브란스병원) ▲고위험 병원체 관리(박강훈·인천성모병원) 등 임상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특히 ‘채혈실 업무 개선을 통한 민원감소 활동’ 강의는 환자와 가장 접점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큰 공감을 얻었으며 병원들간의 노하우를 질의 응답하며 알찬 시간이 되었다. 또한 ‘폐기능 및 청력 검사’ 등 특수 검사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회원들의 높은 집중도와 함께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날 2026 I-MEDITWEEK 개최식에서는 인천시장상 인천혈액원 박인섭 감사와 인천시의장상 적십자병원 정낙훈 감사, 국회의원상에 김여일 前 공보이사가 수상하였다. 또한 자체 학술장려상은 가천길병원 오혁 정무이사와 국제성모병원 신명재 보험이사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이번 보수교육은 인천의료기사연합회와 함께 8개단체 의료기사들과 함께 학술행사를 진행하여 회원들간의 화합은 물론 의료기사단체가 함께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주민과 외국인을 위한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하였다. 임상병리사회는 혈당안내 및 혈압검사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임상병리사의 역할도 함께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회원들의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기획하여 임상병리사의 위상 제고와 권익 신장에 앞장설 계획이다.

발달장애아동 두드리락 난타 문화예술단에 후원금 기부



인천시회가 발달장애아동 문화예술 단체 ‘두드리락(樂) 난타 문화 예술단 (대표 정은희)’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진단 검사 전문가로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임상병리사들이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문화적 자립과 예술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두드리락 난타단’은 2017년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예술단으로, 그동안 KBS, EB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과 사회적 기여를 실천해 온 모범적인 단체다. 전달된 후원금은 예술단 단원들이 스스로 삶의 자존감을 높이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연습 환경 개선 및 국내외 공연활동 지원비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회 채희영 회장은 “세계와 소통하고 자존감을 높이겠다는 두드리락 난타단의 비전은 우리 임상병리사들이 지향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와 맥을 같이 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단원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꿈을 두드리는 데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두드리락 난타 문화예술단 정은희 대표는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의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주신 후원금은 단원들이 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애인 문화사절단으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발맞춰 보건 의료 전문성 강화는 물론, 지역 내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폐기능검사 실무교육 실시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회장 곽진영)는 2026년 3월 28일(토) 14시부터 17시까지 경남도회 사무실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폐기능검사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임상병리사회협회가 연계하여 시행한 검진 인력 교육의 일환으로,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임상 현장 실무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교육은 사전 등록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에게는 보수교육 1평점이 부여되었다.

특히 경남도회는 타 시도에 앞서 폐기능검사 교육을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회원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강사진으로는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폐기능검사 전문인력 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삼성창원병원 주은미·주희만 회원과 한국건강관리협회 운영란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이론 강의와 실습 교육이 병행되어 교육의 이해도를 높였다.

실습 교육은 Vyntus Spiro와 Micro Quark2 장비를 활용하여 1:1 맞춤형으로 진행되었으며, 장비 엔지니어 및 관련 업체의 지원이 더해져 교육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또한 교육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고, 수료자에게는 교육 이수증을 수여하였다.

경남도회는 앞으로도 회원의 전문성 제고와 임상검사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2026년 혈액전문임상병리사 워크숍 개최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학회장 이현아) 혈액전문임상병리사 실무위원회(위원장 김선경)가 4월18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대강당에서 13:30 ~17:30 4시간에 걸쳐 2026년 혈액전문임상병리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현아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혈액전문임상병리사 워크숍을 통해 임상병리사 고유의 영역인 채혈과 검사업무의 질을 포함한 임상현장의 효율과 책임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첫번째 강의로는 신촌세브란스병원 김선경 회원의 '말초혈액도말 혈구형태'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으며, 두번째는 노원뉴하트내과의원 홍지연 교수가 '순환기내과의혈액검사 무엇을, 왜,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해 강연하였고, 마지막 강의는 강원대학병원 육희정 교수가 'Practical Diagnostic Approach to Myelodysplastic Syndromes and Myeloproliferative Neoplasms'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총 72명의 혈액전문임상병리사 회원이 참석하였다.

조직세포검사학회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소식지 'HEPa' Vol.04 바로가기

이미지를 누르면 소식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ol.04 | 2026.04

HEPa
H&E stain and Pap stain

KOHC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Histology & Cytology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 Vol. **04**
2026.04

HEPa : H&E stain and Pap stain의 뜻을 담았습니다

자궁 병리의 기초 육안검사부터 최신 분자진단까지 핵심 지견 공유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임상병리사 전문성 강화의 장 마련



2026년 춘계학술대회, '유방암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26. 5. 16.(토) 장소 서울아산병원

논문 연구

- 비소세포암 FFPE TMA 기반 후성유전학적 마커의 발현연구 - 김길호
- 육안검사의 표준화된 프로토콜 개발과 Gross 양식의 임상적 유용성 - 지우현
- 다양한 고형암에서 OCAv3, OCA-Plus 패널의 진단 성능 및 임상적 유용성 비교 - 윤정희
- 단일 용모막 이양막 태반에서의 태반 혈관 문합 유형에 따른 임상병리학적 분석 - 송현범

학술심포지엄

- 고재문 교수(서울대학교병원) - 유방암 현미경 진단(2시간)

대한임상검사과학회

KJCLS 2026년 3월호(Volume 58, Number 1) 발행

논문 제목을 누르시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view Article

Review of the Changing Roles of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s and Strategies for Curricula Innov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Hee Sung KIM

Korean J Clin Lab Sci 2026; 58(1): 1-9



Original Articles

Comparative Analysis of Antimicrobial Resistance Patterns between Blood and Non-blood Clinical Isolates in a Korean Tertiary-care Hospital

Kyung Sook CHOI, Ho Keun CHOI

Korean J Clin Lab Sci 2026; 58(1): 10-20

Study on the Synthesis Method of [¹⁴C]Methionine Using Molecular Sieve as Desiccant

Young Si PARK, Sang Min SHIN, Ji Hoon KANG, Hae Ji KIM, Yoon Jung JUNG, Hwa Youn JANG, Jun Young PARK

Korean J Clin Lab Sci 2026; 58(1): 21-29

Histological Characterization of Post-infarction Cardiac Remodeling in an Animal Model

Jinhyang LEE, Jonghee PARK, Jongwon LEESeung Hwan JEON

Korean J Clin Lab Sci 2026; 58(1): 30-40

Association of Depression and Stress with Vascular Cognitive Impairment

Ha Jeong SUNG, Sang Yong PARK, Min-Woo LEE, Se-Hee KANG, Ji Hye HEO, Kyoung Ran KIM, Jae Eun HEO, Bum Mo KOO, Suhng Wook KIM

Korean J Clin Lab Sci 2026; 58(1): 41-49

Efficiency Evaluation of Internal Quality Control Using Sigma Metrics

Shin Jong KIM, So Yeon PARK, Min HEO, Sang Shin PYO

Korean J Clin Lab Sci 2026; 58(1): 50-62

Association between Smoking Status,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and Dyslipidemia : Analysis Using the 9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Hoyeong JANG, Hyekyung SEO

Korean J Clin Lab Sci 2026; 58(1): 63-78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Asthma and Depression in Korean Adults by Gender and Menopausal Status: KNHANES 2016, 2018, and 2020

Yeseo CHOI, Kihyun OH, Inyoung KANG, Jaewang LEE

Korean J Clin Lab Sci 2026; 58(1): 79-91



Case Report

Transcranial Doppler Detection of Microembolic Signals in a Patient with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A Case Report

Minho HAN, Young Dae KIM

Korean J Clin Lab Sci 2026; 58(1): 92-96



Technical Notes

Multimodal Imaging Workflow for Circumscribed Choroidal Hemangioma

Sung-Hyun KIM

Korean J Clin Lab Sci 2026; 58(1) 97-105

General Overview of Epilepsy Monitoring Unit for Video-electroencephalography Monitoring

Soon-Chul HYUN, Jae-Seung BAEK, Sung-Ho CHANG, Dong-Ok UHM, Soo-Lim YOO

Korean J Clin Lab Sci 2026; 58(1) 106-116

Technical Considerations for Nerve Conduction Study in Ulnar Nerve Dislocation and Subluxation

Hyun Jin KIM, Do Sung CHOI, Sung In YANG, Dae Yoon LEE

Korean J Clin Lab Sci 2026; 58(1) 117-123



Policy

Study on the Unification of the Clinical Laboratory Science Curriculum into a Four-Year Program and Institutionalization Strategies : Policy Proposals for the Future Healthcare Environment

Dongsup LEE, Chang-Eun PARK, Ki-Jong RHEE

Korean J Clin Lab Sci 2026; 58(1) 124-138

임상병리사를 위한 흥미로운 보험정보

잠복결핵 검사안내



결핵균 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 감마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 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 다.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 라.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 1)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 α inhibitor)
 - 2) 면역 매개 염증성 질환자 중 위 라.1) 이외 생물학적제제 혹은 소분자억제제
- 마.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
(15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 바. 투석 중인 환자
- 사.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 아. 규폐증
- 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등 관련 안내

- 검진 대상 : 의료기관 종 사자 - 병원급, 의원급 모두 해당
-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의료기관장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종사자 포함
(파견 · 도급 · 용역 종사자 포함)

결핵 검진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실시** 원칙

잠복결핵 검진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단,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및
결핵 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매년 실시**
신규채용자의 경우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한다

TR
CORPORATION

2026년 공단검진 폐 기능 검사 추가 The Spirokit으로 대비하세요



KAMT NEWS



검사 결과 최신 지침 참고 분석 및 해석 보조

- GINA, GOLD 최신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검사결과분석 지원
- 폐기능검사 지표의 해석 일관성 및 검사품질 향상

간편검사 및 검사가이드 S/W

- 검사 가이드 화면을 통한 표준화 된 검사 과정 안내
- 검사 오류 및 재검률 감소로 검사 시간 효율화
- 검사 중 환자 스트레스 및 피로도 감소

국내 생산 기반이 국산 폐기능검사 장비

- 3L Calibration Syringe, 온습도기압계, 검사기 등 모든 장비 국내 생산
- 국제 폐기능검사기 품질기준 ISO 26782:2009에 따른 시험성적서 보유

다양한 검사 환경 대응

- 높은 휴대성으로 병동·외래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 (무선 PACS 연동을 통한 병동검사 지원)
- 공단 폐기능검진 및 특수폐기능검사에서도 활용 가능

제품문의

042-719-8823

newxman@theresearcher.co.kr

차세대 의료기기 전문기업
TR CORPORATION

회원 권익 보호

통합돌봄시대, 현장검사 확대 속 임상병리사 권익을 지키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실장 김기유



'임상병리사 없이 검사 가능' 광고에 대한 민원 제기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본격화로 현장검사(POCT)의 활용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검사 접근성의 확대가 곧 검사행위의 전문성과 책임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최근 일부 체외진단의료기기 광고가 '임상병리사 없이 검사 가능'이라는 표현으로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해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다. 이번 사례는 회원 권익보호가 곧 국민의 안전한 검사환경을 지키는 일임을 보여준 대표적 현장 사례라 할 수 있다.

해당 광고는 POCT 생화학 장비 Exdia PT10을 소개하며 “오직 70µL, 손끝채혈로 검사가 가능합니다”라고 홍보했고, 이어 “10분 내 최대 9개 항목의 검사가 가능하며 별도의 임상병리사 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문구는 단순한 제품 설명을 넘어, 임상검사 업무가 마치 전문인력 없이도 수행 가능한 것처럼 인식될 여지를 만들었다. 협회는 이를 임상병리사의 면허 기반 업무영역을 약화시키고, 의료현장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문제적 표현으로 판단했다.

장비의 소형화가 전문성의 축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임상병리사의 역할은 단순히 기기를 조작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채혈과 검체 취급, 검사 전·중·후 과정의 품질관리, 시약과 장비 상태 점검, 내부·외부 정도관리, 이상 결과 검증, 결과 보고의 신뢰성 유지까지 모든 과정에 전문적인 판단과 책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장비가 소형화되고 조작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해서 검사 자체의 본질과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광고는 '간편성'과 '속도'를 강조하며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축소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협회가 이를 단순한 홍보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회원 권익과 국민 건강권의 문제로 받아들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협회는 민원을 통해 문제를 제도적으로 제기했다.

협회는 해당 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광고와 운영이 관련 법령과 면허체계, 환자안전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민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다시 판매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로 이송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민원이 의료기기법상 허위·과대광고 관련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식약처는 혁신진단기기정책과 검토 후 판매업체 점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이송했다.

점검대상은 판매업체 '비케이더블유', 점검품목은 'Exdia PT10', 점검사항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및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제3항 위반 여부였다.

이번 사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의 최종 회신이다. 보건소는 의료기기 광고는 심의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한 뒤,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기가 의사, 임상병리사 등 전문가용 의료기기임에도 “임상병리사 없이 검사 가능”이라고 홍보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비록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어 현장 게시 상태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관할 기관은 향후 광고 게시 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하였다고 회신했다. 이는 협회의 문제 제기가 단순 항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적 판단과 후속 조치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다.

현장검사 확대의 전제는 임상병리사 중심 관리체계다.

현장검사는 결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간이·현장검사의 상당수에서 품질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고, 이러한 문제는 내부정도관리와 외부정도관리, 현장검사위원회의 체계적 관리 속에서 발견되고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고령사회와 통합돌봄에 대응하기 위한 POCT 제도화 논의 역시 운영자 자격, QC, 환자안전 중심의 관리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장검사의 확대가 임상병리사의 역할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상병리사 중심의 표준화된 운영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검사 환경이 분산될수록 전문인력의 책임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해져야 한다.

협회는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대응할 것이다.

이번 민원 사례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회원 권익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협회는 “임상병리사 없이 검사 가능”이라는 표현이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지 않았고, 법령과 제도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검토를 통해 해당 표현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 이는 단순한 직역 수호를 넘어 검사행위의 본질과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대응이었다.

회원 권익보호란 결국 임상병리사의 전문영역을 분명히 하고, 이를 흐리는 잘못된 시장 메시지와 제도적 혼선을 바로잡는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이번 사안에 적극 대응한 것은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검사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행동이었다. 앞으로도 협회는 현장검사가 편의성과 수익성보다 전문성과 환자안전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회원과 함께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감상평 EVENT



이번 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감상평 작성하고 기념품 받자

접수기한 • 2026년 5월 20일(수) 18:00까지 전송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 성명, 면허번호,
상품받으실 주소

♥ 제519호 당첨자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최은정(정회원) / 면허번호 : 39410

병리과에서 근무하며 매일 접하는 조직 및 세포 병리 검체들이지만, 이번 기사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차원의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병리조직검사 시 검체 양의 10배에 해당하는 10% 중성 완충 포르말린 사용 규정이나, 세포 병리검사의 95% 에틸알코올 즉시 고정 원칙 등은 정확한 진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단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단순히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넘어, 위탁 관리 기준에 따른 철저한 보존과 이송 프로세스가 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체감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세부 지침들을 체계적으로 짚어주어 병리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견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SNS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및 SNS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아이콘을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카카오톡 채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인스타그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페이스북 페이지



회원소식을 전달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kamtreporter@daum.net]로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보내주시면
병리협보에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4월 언론보도

기사 제목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커스] 언제까지 의사 '허락' 기다려 채열해야 할까



매경헬스

"원격지도 vs 처방·의뢰"...의료기사법 개정안, 수요자 중심 전환 요구 커진다



매경헬스

왜 막는가...의료기사 단체, 법안 지연에 강한 반발



70년의 역사 의료계 최초의 신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원격지도 도입 중단, 처방·의뢰로 전면 개정하라"



의학신문

"원격지도로는 통합돌봄 못한다... 의료기사법 정의부터 현실 맞게 바꿔야"



Dailymedi

보건의료문화를 선도하는 데일리메디

의료기사들 "통합돌봄 막는 의료기사법 개정" 총연합회 "개정안 통과" 국회 앞 집회



쿠키뉴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통합돌봄 막는 낡은 규제"...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원장목소리 뉴미디어

뉴스클레임

보건의료노조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심의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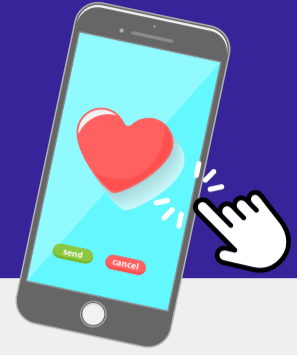
더임팩트

국회 복지위 결단 D-데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의료기사법 즉각 상정해야"



16개 시도회 SNS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팔로잉과 친구 추가 해주세요.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울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



전북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

▶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



경기도 +
임상병리사회



경상남도 +
임상병리사회



충청북도 +
임상병리사회



강원특별자치도 +
임상병리사회